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김준수[○], 조우홍^{*}, 장영은^{*}, 변길희^{**}, 최대훈^{**}, 김미경^{***}, 윤경미^{****}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서원대학교 아동복지과,

^{***}서원대학교 바이오코스메틱학과,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e-mail: {solrins[○], csdcj^{*}, qkqh0120^{*}, kilheelove^{**}, pr1424^{**}, kim5179^{***}, ykm0853^{****}}@hanmail.net

A Study on the Employment Success Factors of Young University Graduates

Jun-Su Kim[○], Woo-Hong Cho^{*}, Young-Eun Jang^{*}, Kil-Hee Byon^{**}, Dea-Hun Choi^{**},

Mee-Kyung Kim^{**}, Kyoung-Mi Yun^{****}

[○]Dept. Social Welfare Major, Seowon University,

^{*}Dept. Social Welfare Major, Seowon University,

^{**}Dept. of Child Welfare, Seowon University,

^{***}Dept. of Bio-Cosmetic Science, Seowon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won University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 분석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결정 요인 비교를 통해 대학의 취업 지원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 대졸자 취업경로이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특성, 학교특성, 진로선택 및 취업프로그램 참여, 취업 준비 활동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고 취업 성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취업 성공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수도권 대졸자는 개인특성 중 연령, 부모자산, 어학연수 경험이 취업 성공(+) 요인이었고, 대학특성은 2~3년제 대졸자가 4년제, 교육대 대졸자 보다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진로선택 및 취업프로그램 참여 중 직장체험, 면접·이력서 작성이 취업 성공(+)요인으로 직업심리검사는 취업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활동 경험 중 SSAT 자격증, 공모전 수상, 대외활동, 이력서·면접훈련은 취업 성공(+) 요인으로 졸업 전 구직활동, NCS 준비, 외모관리는 취업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대졸자는 개인특성 중 연령, 부모자산이 취업 성공(+)요인이었고, 2~3년제 대졸자가 4년제, 교육대 대졸자 보다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진로선택 및 취업프로그램 참여 중 직장체험, 면접·이력서 작성이 취업 성공(+)요인으로, 직업심리검사, 기업채용설명회는 취업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활동 경험 중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대외활동, 모의면접은 취업 성공(+)요인이었고, 졸업 전 구직활동, 자격증, 외모관리는 취업 성공(-)요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4년제 대학의 비교과 활동 강화, 취업환경과 유사한 실무능력 배양 교육, 면접·이력서 작성 등 실제적 취업지도 프로그램 시행을 제시하였고, 봉사활동, 대외서포터즈, 공모전 등 취업처에 실무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실무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청년실업(Youth Unemployment), 취업프로그램(EmploymentGuidance Program), 취업성공(Job Success), 진로탐색(Ccareer Exploration), 대졸자 취업(University Graduate Employment)

I. Introduction

지출생으로 인한 학력인구 감소는 대학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 요소이다. 따라서 대학은 신입생모집과 중도 탈락률 관리, 취업률 관리를 대학 생존을 위한 필수 관리 요소로 삼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입시, 학생관리, 취업은 대학의 성공적 운영의 지표이다. 이들 개별지표는 대학 교육의 최종성과라 할 수 있는 진로 확정과 취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입시 경향은 전문직, 취업 성공이 높은 학과, 서울수도권, 이공계열에 쏠림현상이 강하고 이로 인한 지방대의 위기, 학문 다양성의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본역량평가 등 각종 성과지표 중에 빠짐없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학생취업률에 대해 대학은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학 진학률 73.7% 대비 청년 실업률 7.8%, 취업률 44.2%의 심각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1]. 물론 선행연구의 지적처럼 청년 대학 졸업자의 실업과 미진한 취업률이 경기성장 둔화, 임금의 경직성, 산업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에 있다하지만, 노동시장 정보제공의 부족, 고용지원 서비스 부족[2]과 같은 문제는 대학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대학은 비교과 활동을 통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취업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진로탐색, 진로상담, 멘토링 체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취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취업준비 활동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지원이 취업 성공에 어떤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실제적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일부연구에서 취업준비노력[3], 취업준비행동[4]을 살펴보고 있으나 이들은 취업과 관련한 진로탐색 과정과 그에 따른 학교의 노력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더불어 연구 단위와 대상이 특정대학, 특정계열, 일부지역[5]에 머무르는 등 포괄적 적용을 위한 정보로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II. Analysis process

Table 1. 주요 변수의 구성

개인 특성	1. 성별(남=0,여=1)	취업 준비 활동 경험 (No=0, Yes=1)	20. 졸업 전 구직활동경험
	2. 연령(연속형)		21. NCS시험준비 경험
	3. 학점(연속형)		22. SSAT 시험 준비 경험
	4. 어학연수경험(N=0,Y=1)		23. 외국어 자격 준비 경험
	5. 부모 학력(연속형)		24. 봉사활동 경험
	6. 모의 학력(연속형)		25. 공모전 참여 경험
	7. 부모의 소득(연속형)		26. 일반 자격증 준비 경험
	8. 부모의 자산(연속형)		27. 대외활동 참여 경험
	9. 전공계열		28. 외모관리 경험
대학 특성	10. 대학의 유형 (2~3년제=1, 4년제=2, 교육대=3)	29. 이력서·면접훈련 경험	
	11. 국공, 사립 (국공립=0, 사립=1)	30. 모의 면접훈련 경험	
	진로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 (No=0, Yes=1)		
12. 진로관련 교과목		16. 진로관련 상담	
13. 직장체험		17. 면접·이력서 작성	
14. 인적성 검사		18. 취업캠프	
15. 취업박람회		19. 기업채용 설명회	

연구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9년도 ‘대졸자 직업 이동경로조사[6] 자료를 활용, 해당년도 졸업자 15,777명)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Table 1>과 같이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취업 성공 여부를 종속변수를 설정,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Analysis results

2.1 서울·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 분석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은 연령, 부모자산, 어학연수 경험, 직장체험, 면접이력서 작성, SSAT 자격, 공모전 수상, 대외활동, 이력서·면접훈련이 취업 성공의 정적(+)영향 요인이었고, 직업심리검사, 졸업 전 구직활동, NCS시험준비, 외모관리는 취업 성공의 부(-)적 영향요인이었다. 대학 특성은 2~3년제가 4년제, 교육대보다 취업 성공 가능성이 컸다.

반면, 비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 성공 요인은 <Table 3>와 같으며, 연령, 부모자산, 직장체험, 면접이력서 작성,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대외활동, 모의 면접이 취업 성공의 정(+)적 영향요인이었고, 직업심리검사, 졸업 전 구직활동, 자격증, 외모 관리는 취업 성공의 부(-)적 영향요인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대학 특성은 2~3년제가 4년제, 교육대보다 취업 성공 가능성이 컸다.

Table 2. 서울·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

변수		B	S.E	Exp (B)	P
개인 특성	연령	.100	.017	1.105	.000***
	부모자산	.051	.012	1.052	.000***
	어학연수 경험	.208	.087	1.232	.016*
대학 특성	학교(4년제)	-1.076	.350	0.341	.002**
	학교(교육대)	-1.292	.344	0.275	.000***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직장체험	.158	.066	1.171	.016*
	직업심리검사	-.183	.062	0.833	.003**
	면접·이력서 작성	.174	.076	1.191	.022*
취업 준비 활동 경험	졸업 전 구직활동	-.296	.116	0.744	.011*
	NCS	-.216	.101	0.806	.033*
	SSAT	.350	.106	1.420	.001**
	공모전 수상	.299	.103	1.349	.004**
	대외활동	.356	.104	1.428	.001**
	외모관리	-.421	.109	0.656	.000***
	이력서·면접훈련	.566	.097	1.762	.000***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 학교유형*2~3년제

1) 2019년 당해년도 대졸자 중 만 22세~32세를 연구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이들 중 결측과 이상치를 제외한 남성 8,000명, 여성 7,777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Table 3. 비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

변수		B	S.E	Exp (B)	P
개인 특성	연령	0.053	.016	1.055	.001**
	부모자산	0.060	.012	1.062	.000***
대학 특성	학교(4년제)	-1.745	.300	.175	.000***
	학교(교육대)	-2.125	.292	.119	.000***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직장체험	.131	.061	1.140	.031*
	직업심리검사	-.131	.054	0.877	.014*
	면접·이력서 작성	.224	.063	1.251	.000***
	기업채용설명회	-.149	.067	0.862	.027*
취업 준비 활동 경험	졸업 전 구직활동	-.296	.107	0.744	.006**
	봉사활동	.303	.090	1.354	.001**
	공모전 수상	.258	.102	1.294	.012*
	자격증	-.199	.094	0.819	.034*
	대외활동	.229	.108	1.258	.034*
	외모관리	-.385	.098	0.680	.000***
	모의면접	.372	.090	1.451	.000***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 학교유형*2~3년제

IV. Conclusions

개인특성은 서울·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연령, 부모자산이 공통적으로 취업성공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취득,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서울·수도권에서는 어학연수 경험이 취업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수도권 취업관련 요구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2년·3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성공 가능성이 4년제, 교육대에 비해 높았다. 이는 전문 분야 취업 목표를 구체화하고 교육으로 접근하는 전문대학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선발 감소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서울·수도권 졸업자 모두 직장체험 경험, 면접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업심리검사는 서울·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취업 성공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심리검사가 현재 전공 및 진로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진로 선택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 체험, 기술 등의 활동 경험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 준비 활동 경험 여부는 서울·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모두 졸업 전 구직활동, 외모 관리는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와 달리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NCS 시험 준비가 취업 성공 가능성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채용방식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전환되어 외모가 평가 대상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서울·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NCS 시험 준비보다 SSAT 시험 준비가 취업 성공 요인으로 밝혀진바 취업처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업처를 목표로 하는 취업 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모두 공모전 수상, 대외활동이 취업 성공 요인이었고, 자원봉사, 면접, 이력서 준비 등 취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교육과 활동이 취업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 성공 요인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취업 준비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 경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취업 성공 요인을 오롯이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다양한 요인과 세밀한 분석을 통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REFERENCES

- [1] <https://kosis.kr/search/search.do>.
- [2] Kim, A. G. & Yoo, H. G. "Estimation of demand by occupational type of university and junior college graduates-Using an occupational dictionar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4.
- [3] Choi, I. S & Shin, E. J, "An Empirical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Successful Job Seeking of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the Impacts of Job Education Programs".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3(1): 23-49, 2016.
- [4] Moon, Y. M & Hong, J. P.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Differential in the Regional Labor Market of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7(4), 70-93, 2019.
- [5] Ji K. Y. & Han J. Y. "A Study on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Four-year Collegi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Level : The case of C University". 14(6), 33-41. 2016.
- [6] <https://survey.keis.or.kr/goms/gomscodebook/List.jsp>